

보·도·자·료



대우통신, 일반용지팩스 2기종 정부조달물자 선정

- 정부 조달물자 선정에 총3기종 중 2기종 선정 -

- 관공서 팩스 민원서류 발급 힘입어 수요 폭발 예측
...올 일반용지 팩스시장 지각변동 예고.
- 정부조달등록 물자 모두 보통용지 팩스로 선정

최근 실시된 사무자동화기기 정부 조달물자 선정에서 大宇通信(대표: 柳基範)의 복합사무기 '하비셋' (DF-3001)과 잉크젯 방식의 일반용지 팩시밀리 '띠아모 플러스'(모델명 : DF-2000) 2개 기종이 96-97년 정부조달 등록모델로 낙찰됨으로써 대우통신이 향후 일반용지 팩스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2일부터 일선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서 호적등·초본을 비롯한 16가지 민원서류의 팩스 발급이 시작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수요보다 폭발적으로 민원이 늘어 업무마비 사태까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대우통신은 이번 조달물자 낙찰을 계기로 일반용지 팩시밀리 시장에서 지난 94년에 이어 다시 선두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 대우통신이 '하비셋'이라는 브랜드로 보통용지 팩스·레이저 프린터·복사기·전화기 등 4가지 기능을 합친 제품을 출시, 「복합 사무기」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일반용지팩스 시장은 올해들어 이 회사가 잉크젯 방식의 저가 일반용지 팩스 '띠아모 플러스'(모델명 : DF-2000)를 출시하고 삼성전자, 신도리코, LG전자 등의 업체들이 잇따라 제품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올 상반기 팩시밀리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1%정도 늘어난 17만대로 이준 보통용지 팩시밀리는 전년 대비 123%가 늘어난 4만대가 판매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번 조달청의 정부조달물자 입찰에서 3개 기종이 모두 보통용지 팩스로 선정됨으로써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우통신 관계자는 『통상 정부 조달자로 등록된 제품이 시장을 주도해온 전례를 볼 때 앞으로 보통용지 팩스가 시장을 주도, 내년에는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보통용지 팩스가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올해 등록된 3개 모델 가운데 2개를 차지한 대우통신은 현재 12%인 시장점

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려 95년 삼성과 LG의 저가형 홈팩스에 빼앗긴 1위 자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통용지 팩시밀리는 감열방식의 팩시밀리와는 달리 레이저 프린터나 잉크젯 프린터의 원리를 이용하여 감열지가 아닌 보통용지에 데이터를 기록함으로써 원고가 말려서 불편했던 기존 감열지 팩시밀리의 단점을 제거했다.

또한 기존 감열지 방식의 팩스 원고를 결재 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따로 복사를 해야했던 불편을 해소,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무실에서 호평을 받아 올해 들어 시장이 본격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문의: 대우통신 홍보부 최병호 /이정록 대리(전화 589-2053/4)

보·도·자·료



디지털 CATV 시대 열린다

- 대우통신·KNC·大榮전자 시스템 공동개발
- 송파구 거여동아파트단지 대상 시범서비스
...현지 주민들로부터 호평 받아
- 전화국에서 아파트단지까지 광케이블 연결,
전화선 통해 각 가정으로
- HDTV 수준의 화질, VOD, 200배속 인터넷 접속 등
꿈의 서비스 실현

大宇通信, KNC, 大榮電子 등 3社は FTTC(Fiber To The Curb) 방식의 디지털 광전송망을 공동으로 개발 완료하고 이 전송망을 통해 송파구 거여동 아파트 지역에서 디지털 CATV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광전송망은 Full Service Network으로 이를 이용하면 하나의 회선으로 각 가정에 설치된 세트탑 박스를 통해 CATV, DBS(위성방송), 인터넷 접속, VOD(주문형비디오), 홈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중인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가입자 인입망으로서의 역할도 맡게 된다.

현재 인 시스템을 통해 거여동지역에 디지털 CATV, DBS(위성방송) 등 2가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은평유선방송국에서 한국통신의 불광전화국으로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 비동기식 전송모드) 방식으로 보내진 MPEG2 형태의 영상데이터를 155Mbps의 광케이블망을 통해 해화

전화국, 가락전화국을 거쳐 거여동 아파트단지의 원격분배장치(Remote Terminal)까지 전달한 후 전화선을 통해 각 가정의 세트탑 박스까지 25Mbps의 속도로 연결된다.

각 가정에서는 이 세트탑 박스를 통해 디지털 CATV, DBS(위성방송, 주문형비디오(VOD)등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최근 일반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터넷에 기존 28.8Kbps 모뎀보다 208배나 빠른 6Mbps의 속도로 접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전화회선을 통해 HDTV수준의 디지털 CATV나 주문형비디오·온라인 게임·홈뱅킹 등의 멀티미디어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향후 어떠한 서비스



불광전화국 홍보관에서 열린 디지털CATV 시연회

가 등장하더라도 곧바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하나의 망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Full Service Network으로서 서비스 내용

에 따라 별도의 망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서비스 내용이 많아질수록 S/W 설치만으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어 가장 경제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한편 이 서비스는 97년 3월부터

본격 서비스 될 계획이다.

문의:대우통신 홍보부 최병호

/이정록 대리(전화 589-2054)

보·도·자·료



대우통신, 全電子교환기 2억달러 규모 수출계약 체결 - 우크라이나와 10년간 1백3십만회선 -

■ 전전자교환기 단일 수출물량으로 사상 최대

대우통신(대표:柳基範)이 독립국가연합(CIS)의 우크라이나공화국과 총 1백3십만회선 2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全電子교환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우크라이나공화국 국영 통신회사인 '우크텔레콤(UKRTELECOM)'과 체결한 이 계약에 따르면 대우통신은 향후 10년간 대용량교환기(DTS-3100)를 매년 13만회선 2천만달러 규모로 우크라이나공화국에 공급키로 하였다.

대우통신은 매년 13만회선의 교환기를 일괄공급방식(Turnkey Basis)으로 수출하게 되며, 이 물량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최소 구매량을 명기한 것으로 상호 합의를 거쳐 증가 가능하다.

이번 수출계약은 우크라이나공화국의 통신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전전자 교환기를 대우통신이 공급키로 한 것으로 전전자교환기 단일 수출물량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계약은 지난 6월 우크라이나 정부주최 통신현대화사업 추진업체 선정에서 대우통신이 국내 업체중 유일하게 알카텔, 지멘스, 루슨트테크놀로지 등 세계적인 통신업체들과 나란히 선정된 1대 연이은 쾌거이다.

한편, 우크라이나공화국은 기본통신망이 대부분 기계식교환기로 구축되어 있으며 전화보급율은 인구 1백인당 15대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번 대우통신과의 전전자교환기 수

출 계약은 현지 방송 및 신문 등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대우통신은 그동안 이란, 미얀마, 알제리아, 중국, 우즈베크공화국, 조지아공화국 등 세계 각국에 총 52만회선 1억4천5백만달러 이상을 수출해 오고 있는데, 이번 계약을 계기로 대우통신은 세계적인 교환기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게 되었다.

문의:대우통신 홍보부 최병호

/이정록 대리(전화 589-2053/4)

보·도·자·료



대우통신, 한국형 CDMA 개인통신교환기 개발 성공

- 한국통신의 한국형 PCS 접속규격 완벽 구현 -

- 한국통신·모토로라사와 공동 개발
- GSM, 아날로그 방식 등도 전환 가능
- 대우통신, TDMA에 이어 CDMA PCS 장비업체로 부상

대우통신(대표:柳基範)이 국내 최초로 한국형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의 개인통신교환기(모델명:TDX-10PCX)의 및 가입자정보처리장치(HLR)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통화에 성공하였다.

이는 대우통신이 지난해말부터 한국통신 및 미국의 모토로라사와 함께 개인통신시스템(PCS)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여 개발해 온 것으로 모토로라에서 개발한 한국형 기지국 시스템과의 접속에도 성공하였다.

대우통신은 국산 전전자교환기 TDX-10A에 이동통신 교환기능을 갖는 개인 통신교환기 및 가입자정보처리장치(HLR:Home Location Register)를, 한국통신은 한국형 PCS 접속규격인 1.8GHz 주파수와 KT-PAP 프로토콜 및 13Kbps Vocoder 등의 제반규격 자성 및 시스템 시험을 담당하고, 모토로라는 기지국 제어기, 기지국 및 단말기를 분담하여 개발 완료한 것이다.

특히 대우통신에서 개발한 이 개

인통신교환기는 완벽한 PCS 환경을 지원하는 교환기로서 가입자 수용용량이 최대 35만명에 달하며, 국제통신연합(ITU)이 인정하는 개방형 인터페이스 표준(A', IS-651)을 채택, 이 규격을 채택한 세계 어떤 기지국제어기와도 정합이 가능하다.

또한 이 개인통신교환기는 CDMA뿐만 아니라 GSM, 아날로그 AMPS(Advanced Mobile Phone Service), NAMPS(Narrow Band AMPS) 방식 등의 기지국에 수용하므로 공중망(PSTN)으로부터 이동망으로의 점진적인 전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초기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이 개인통신교환기는 1.8GHz CDMA 무선접속 규격 및 KT-PAP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설계 되었으며, 기본 호처리 기능 이외에 데이터 운용 관리 처리, 이동성 관리 및 부가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대우통신은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시분할다

중접속방식(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의 개인통신시스템에 이어 CDMA PCS 장비업체로 본격 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대우통신은 이 개인통신교환기 등이 금년 9월부터 실시되는 한국통신의 시험평가에서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우즈베크 공화국, 아프리카 등 해외 시장도 적극 개척해 세계적인 PCS 장비업체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대우통신 홍보부 최병호

/이정록 대리(전화 589-2054)

보·도·자·료



大宇通信, 차세대 멀티 노트북 시판

- ZV(Zoomed Video)포트와 차세대 PC카드 규격인 '카드버스' 채용
- 초당 132MB까지 지원
 - ...초고속 양방향 멀티데이터 및 HDTV 수준의 동화상 구현
- MIDI포트, 착탈식 CD-ROM 드라이브 채용
 - ...48mm 초박형 실현
- 충전 간편한 스마트배터리 채용, 메모리효과 제거
 - ...완전 방전후 충전해야하는 불편 개선

새로운 규격을 채택한 제품이 나와도 업그레이드가 필요없는 노트북 PC가 나왔다.

대우통신(大柳基範)은 펜티엄 100MHz와 133MHz의 CPU를 장착하고 국내 최초로 기존 16bit PCMCIA 규격을 대체할 32비트 '카드버스(CardBus)'와 착탈식 CD-ROM 드라이브 등을 채택한 차세대형 멀티미디어 노트북PC 「솔로 7500」시리즈 총 7개모델(모델명: CPC-7550TP13A, 7500TP10A등)을 개발완료하고 시판에 들어갔다.

카드버스는 지난해 노트북PC에 국내 최초로 IR무선통신 기능을 채택했던 대우통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차세대 규격으로 PCMCIA Type II, III 등 기존 노트북 PC의 주변기기 접속단자를 대체할 새로운 규격이다.

이 카드버스 규격은 기존 PCMCIA 용 버스가 16비트인데 비해 32비트 버스 구조로 되어있고, 최고 초당 132MB의 전송속도를 지원함으로써

초고속 인터넷 접속과 HDTV 수준의 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기존 PCMCIA 카드가 MPEG I을 지원해써던 데 비해 MPEG II까지 지원할 수 있어 완벽

한 동영상과 음성을 즐길 수 있다.

「솔로 7500」은 카드버스를 기본 장착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구동시킬 수 있는 드라이버의 개발이 10월 말로 예정되어, 대우통신은 이



국내 노트북PC 최초로 기존 16비트 PCMCIA 규격을 대체할 32비트 카드버스(CardBus) 인터페이스를 내장.

새로운 규격을 채택한 제품이 나와도 업그레이드가 필요없는 대우통신 노트북PC 신제품 「솔로7500」 (모델명 : CPC-7550TP13A)

‘카드버스’ 드라이버를 하이켄, 천리안, 나우콤 등 PC통신망(go dwpc)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wt.daewoo.co.kr)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이 카드버스 규격을 채택한 제품은 100Mbps LAN카드 뿐이나 올 11월 컴덱스쇼를 계기로 MPEG 카드 등을 비롯한 각종 주변기기들이 대거 선보일 것으로 예상돼, 이 주변기기들을 이용할 경우 풀모션 양방향 화상회의 등 ISDN망을 통해 제공 받는 수준의 멀티미디어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솔로7500」 시리즈는 올 11월경부터 본격 이용이 가능한 카드버스와 함께 ZV(Zoomed Video)포트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 ZV포트

의 특징은 기존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MPEG과는 달리 시스템 버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디오와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 CPU의 전력소모 없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MPEG 기능을 수행하므로 노트북 PC에서 화상회의 및 TV 수신이 가능하다.

또한 12.1인치 대형화면에 CD-ROM 드라이브와 FDD를 필요에 따라 교대로 장착할 수 있는 착탈식 6배속 CD-ROM 드라이브를 장착하고도 48mm의 초박형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최신 스마트 배터리를 채용함으로써 완전 방전후 충전해야하는 기존 배터리의 메모리효과를 제거,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다.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포트를 장착, 전문가 수준의 컴퓨터 음악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녹음까지 가능한 16bit 사운드카드를 탑재함으로써 취재·회의·브리핑 등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솔로7500」시리즈는 데스크탑에 못지않은 1.44GB의 국내 최대용량의 HDD를 장착했다.

그밖에 대형모니터와 연결할 수 있는 CRT포트를 비롯, 외부 키보드·마우스·FDD·오디오 포트 등 다양한 포트를 갖추고 있다.

부가세포함 소비자가격은 264만원(7500TP10)에서 385만원(CPC-7550 ㄸ13A)까지 총 7개 모델이다.

문의:대우통신 홍보부 최병호

/이정록 대리(전화 589-2053/4)